

2024 수능 국어 대비

백분위 99%를 위한 1%를 담다.

why

2024
수능
국어

문학

평가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다.



* 5 회 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가)

- 1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 2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 3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 꿈같이 만나 있어
- 4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 5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 6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 7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 8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 9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 10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필소냐

[A]

(중략)

- 11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 12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셋거 치고
- 13여름날 길고 길 제 꽃은비는 무슨 일고
- 14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 15가을 달 방에 들고 **실슬(蟋蟀)이 상(床)에 올 제**
- 16**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 17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 18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 19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 20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셋거 타니
- 21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댛소리 섯도는 듯
- 22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 23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 24**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 25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쳤어라
- 26차라리 잠을 들어 ㉡ 꿈에나 보려 하니
- 27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 28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B]

- 허난설헌, 「규원가」 -

* 다시 : 시기가 많음.
* 면목가증 :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나)



1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들흔덕
 2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C]
 3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옹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
 록 비쪽 하나니

- 작자 미상 -

1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 ③ [C]는 두 대상을 받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 ④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 ②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 ③ ㉠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 ⑤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MEMO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뉘그러,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 ① (가)에서 '실솔이 상에 올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 ⑤ (나)의 '후루룩 비쭈'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수능)

(가)

¹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²혼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³나 하나 껌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⁴이 막음 이 스랑 견줄 디 노여 업다
⁵평싱(平生)애 원(願)호요디 혼디 네자 호앗더니
⁶늪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는고
⁷엇그제 님을 띄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낫더니
⁸그 더디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⁹올 저기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일쇠
¹⁰연지분(胭脂粉) 잇너마는 놀 위호야 고이 홀고
¹¹막음의 락친 실음 텃텃(疊疊)이 싸혀 이셔
¹²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¹³인싱(人生)은 유한(有限) 혼디 시름도 그지업다
¹⁴무싱(無心)호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호는고야
¹⁵염낭(炎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태 오니
¹⁶뎡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¹⁷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¹⁸창(窓) 밧기 심근 락화(梅花) 두세 가지 띄여세라
¹⁹궂득 냉담(冷淡) 혼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²⁰황혼의 들이 조차 벼마티 빗최니
²¹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²²더 락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²³님이 너를 보고 엇터타 너기실고

- 정철, 「사미인곡」 -

(나)

¹창 밧기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²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³어즈버 유한(有限)호 간장(肝腸)이 다 그출가 호노라

- 신희 -

* 혜란 혜경 : 난초 핀 지름길.

(다)

¹나는 예전에 장흥방의 길갓집에 살았다. ²그 집은 저갓거리애 제법 가
 까워서 소란스러웠다. ³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 벼짚으로 덮고 흙
 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 만했다. ⁴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
 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⁵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

MEMO

간다[靜勝熱]’는 말을 당호(堂號)*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

⁶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⁷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⁸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취 보고 거북이로 점을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⁹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

¹⁰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고 이사하였다. ¹¹그로부터 삼 년이 흐른 뒤 옛 집을 찾아가 보았다. ¹²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¹³은은하게 처마에 들어오는 산빛, 쿵쿵쿵쿵 담을 따라 도는 골짜기 물, 밀랍으로 발라 번들번들한 살창, 쪽빛으로 물들여 놓은 늘어진 전막.

(중략)

¹⁴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¹⁵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¹⁶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

¹⁷『서경』에 ‘그릇은 새것을 찾고, 사람은 옛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다. ¹⁸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게 가깝다 하겠다. ¹⁹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²⁰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²¹마땅히 임원(林園)*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²²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²³나는 답하리라. ²⁴‘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 당호 : 집에 붙이는 이름.
* 유중영의 옛일 : 당나라 때 문신 유중영이 늘 책을 가까이하며 자식들을 가르치던 일.
* 임원 : 산림.



MEMO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노여'와 (나)의 '다'라는 수식어는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 ② (가)의 '흐느고야'와 (나)의 '흐노랴'는 모두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 ③ (가)의 '미화'와 (나)의 '해란'은 모두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 ④ (가)의 '므스 일고'와 (나)의 '므스 일고'는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 것이다.
- ⑤ (가)의 '님이신가'와 (나)의 '님이신가'는 모두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5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 ①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 ② '점어 잇고'와 '늑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 ③ '삼 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 ④ '인칭은 유흔'과 '무심흔 세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겠어.
- ⑤ '염냥이 '가는 듯 고태' 온다는 인식에서,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MEMO

6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 ①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도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② (나)에서 ‘낙엽’ 소리를 입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의 심리가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 ③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④ (다)에서 ‘옛집’의 ‘초당’에 붙였던 당호를 ‘임원’의 새집에서도 사용하겠다는 것은 필자가 외적 고요에 더해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7 (가)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다) 모두 인간의 외양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 모두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③ (가)와 (다)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④ (가)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다)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에는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다)에는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8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름에 더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옛집 초당의 당호를 정하게 된 내력을 서술하고 있다.
- ② 과거 인물의 행적에 비추어, 다시 찾은 옛집에서 떠올린 기억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새집에 붙이고자 하는 당호의 의미를 통해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변함없는 옛집의 외양과 달리, 변해 버린 인간사로 인해 새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집이 그릇과 같은 부류이지만 사람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여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M E M O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학년도 수능)

(가)

¹반(半) 밤중 혼자 일어 문노라 이내 꿈아

²만 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³반갑다 학가(鶴駕)* 선객(仙客)을 친히 뵈 듯하여라

<제1수>

⁴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이 업다

⁵이역(異域) 춘궁(春宮)을 뉘라서 모셔 오리

⁶지금에 치술령 귀훈(歸魂)을 못내 슬허호노라

<제4수>

⁷조정을 바라보니 무신(武臣)도 하 만하라

⁸신고(辛苦)호 화친(和親)을 누를 두고 호 것인고

⁹슬프다 조구리(趙廐吏)* 이미 죽으니 참승(參乘)홀* 이 업세라

<제6수>

¹⁰구중(九重) 달 밝근 밤의 성려(聖慮)* 일정 만호려니

¹¹이역 풍상(風霜)에 학가인들 이즐쏘냐

¹²이 밖에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못내 분별호시도다

<제7수>

¹³구렁에 났는 ㉠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¹⁴아는 일 업스니 그 아니 조홀쏘냐

¹⁵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겨워 호노 라

<제8수>

¹⁶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¹⁷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을인고

¹⁸바람에 지나는 ㉡ 검불* 갖하여 갈 길 몰라 호노라

<제9수>

- 이정환, 「비가(悲歌)」 -

* 요양 : 청나라의 심양.

* 학가 : 세자가 탄 수레. 또는 세자. 여기서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여 심양에 갇혀 간 소현 세자를 가리킴.

* 박제상 : 신라의 충신. 왕의 아우가 왜에 볼모로 잡히자 그를 구하고 자신은 희생 됨.

* 조구리 : 조씨 성을 가진 마부. 충신을 가리킴.

* 참승홀 : 높은 이를 호위하여 수레에 같이 탈.

* 성려 : 임금의 염려.

* 검불 :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 따위.



MEMO

(나)

¹이전 서울 계동 홍술햇골에서 살 때 일이었다. ²휘문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³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⁴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하였다. ⁵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⁶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芳烈)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세계(別有世界)에 들어 무아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⁷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홍원 함흥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난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⁸그해 여산으로 돌아와서 십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⁹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¹⁰한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¹¹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돌아나게 하였다. ¹²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¹³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¹⁴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란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숲 속에 그 고해(枯骸)만 영성하게 남아 있었다.

¹⁵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에 있으며, 소공(素空)이 건란 한 분을 주었고, 고경선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¹⁶풍란에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것으로서 잎이 넓적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빼어났다. ¹⁷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란은 네 잎이 돋고 웅란은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¹⁸벌써 네 해가 되었다.

¹⁹십여 일 전 나는 바닷개를 먹고 중독되어 괘란(霍亂)이 났다. ²⁰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왔으며,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²¹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²²풍란은 곁에 두었다. ²³하얀 꽃이 몇 송이 별었다. ²⁴방렬·청상(清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²⁵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²⁶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 ²⁷잎이 뾰뾰하고도 오히려 영롱(玲瓏)하다
- ²⁸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 ²⁹청량(淸涼)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A]

- ³⁰꽃은 하얗고도 여린 자연(紫煙) 빛이다
- ³¹높고 조출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이
- ³²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³³완당 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³⁴당외자, 계수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伯仲)할 수 없다. ³⁵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도 가장 진귀하다.

MEMO

³⁶‘간죽하수문주인(看竹何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³⁷그도 그럴듯하다. ³⁸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³⁹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되잖은 서화나 붙여 놓은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⁴⁰두실 와옥(斗室蝸屋)* 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⁴¹뽕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개!

- 이병기, 「풍란」 -

* 간죽하수문주인 : ‘대숲을 봤으면 그만이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뜻.

* 두실 와옥 : 몹시 작고 누추한 집.

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에 당면하여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에는 시대적 고난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10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학자 선객’을 ‘꿈’에서나마 본 일을 언급함으로써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박제상’이 살았던 시대와 대비함으로써 그와 같은 충신을 찾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 작가의 행적과 ‘난’의 생사를 관련 지어 언급함으로써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는 ‘두실 와옥’에 사는 사람이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난’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11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 ② ㉠과 ㉡은 모두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 ④ ㉠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가 된 소재이다.
- ⑤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제시되고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임병양탄 이후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조 양식을 활용해 전란 후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병자호란 직후 지어진 「비가」에도,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마음, 임금을 향한 충정, 전란 후 상황에 대한 견해 등 여러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 각 수의 시어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그 같은 내용들이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와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라는 진술에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 ② <제4수>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에 대해, <제6수>의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는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
- ③ <제6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 있음에도 ‘신고훈화친’을 맺은 결과로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을 겪는다고 화자는 판단하고 있다.
- ④ <제7수>에서 근심에 싸여 있는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화자는 <제9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 ⑤ <제7수>의 ‘달 말근 밤’과 <제8수>의 ‘봄비’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

M E M O

MEMO

13 (나)의 맥락을 고려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썩은 향나무 껍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옥 같은 뿌리’는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A]의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③ [A]의 ‘이는 이’는 ‘풍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난연’과 ‘난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A]는 평소 ‘난’을 통해 ‘위안’을 얻던 작가가 ‘병석’에 누워 조리할 때 ‘풍란’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A]는 ‘난’과 함께한 작가의 정신세계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풍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학년도 수능)

(가) ¹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²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³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
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⁴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⁵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
습니다.
⁶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⁷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⁸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⁹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¹⁰㉡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¹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²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³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⁴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⁵미처 몰랐었다

⁶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⁷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⁸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⁹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¹⁰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¹¹느끼지 못했었다

¹²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¹³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¹⁴양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MEMO

15㉠ 나뭇잎 하나

16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17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18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19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20그 많은 나뭇잎들

21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 (다) 1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2상사(相思)하던 우리 남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3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4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데
 5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6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7구름산은 칙칙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8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9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10옛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붙었더니
 11그 곁에 훌훌하여* 앞에 가득 가을 소리라
 12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13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14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15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16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17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는고
 18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19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닳에 비추고자
 20바위 위에 오동 되어 님의 무릎 베고자
 [A] 21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올고자
 22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23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24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25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견주리오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훌훌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1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 ④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사상이 확산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④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16 (가)와 (다)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 ③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 ④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 ⑤ (가)의 ‘다시 만날 것’과 (다)의 ‘좋은 기약’은 ‘님’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겠군.

17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려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EMO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18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조나 가사에는, 임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세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나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 6 회 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가)

- 1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2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3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 4굽어보면 천심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5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A]
 6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 7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8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9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 10㉠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11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12㉡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 1때마침 부는 추풍(秋風) 반갑게도 보이도다
 2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3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4흰 두건을 젖혀 쓰고 소정(小艇)을 타고 오니
 5㉢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깐 하늘에 눈이 되어
 6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7갈잎에 닳 내리고 그물로
 8잔잔한 강물 속 자린은순(紫鱗銀脣)* 수없이 잡아내어
 9연잎에 담은 회와 향아리에 채운 술을
 10실컷 먹은 후에
 11태기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12희황천지(羲皇天地)*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13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14추월(秋月)이 만강(滿江)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15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16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17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B]



MEMO

- 18 문득 의심은 월궁(月宮)에 올랐는 듯
- 19 물외(物外)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 20 청경(淸景)을 다투면 내 분에 두라마는
- 21 즐겨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 22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도다
- 23 ㉠ 아이야 닷 들어라 만조(晩潮)에 띄워 가자
- 24 푸른 물풀 위로 강풍(江風)이 짐짓 일어
- 25 귀범(歸帆)을 재촉하는 듯
- 26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 27 잠깐 사이 날개 돌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 28 연파(烟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 29 ㉡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겠는가
- 30 강호 흥미(興味)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박인로, 「소유정가」 -

- * 자린은순 : 물고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
- * 회황천지 : 복희씨(伏羲氏) 때의 태평스러운 세상.
- * 동파 적벽유: 중국 송나라 때 소식(蘇軾)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

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은 자연 경물을 ‘나’로 지칭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⑤ ㉡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MEMO

2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강호 자연에서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에 놓임으로써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B]에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강호 자연에 은거한 화자는 달을 대화 상대이면서 동시에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흥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세’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군.
- ②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는 자연 현상이라 볼 수 있군.
-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화자가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군.
- ④ (가)의 ‘녹류에 고기 꿰어’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삶이,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음’에는 뱃놀이의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군.
-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어부는 뱃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MEMO

(가)

1청평사의 나그네	有客清平寺
2봄 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春山任意遊
3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 지저귀고	鳥啼孤塔靜
4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네	花落小溪流
5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나고	佳菜知時秀
6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럽네	香菌過雨柔
7시 읊조리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行吟入仙洞
8나의 백 년 근심 사라지네	消我百年愁

- 김시습, 「유객(有客)」 -

(나)

1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다니
 2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3돌아와 수출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제1곡>

4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냐
 5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시대 흘던질 때
 6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제8곡>

7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8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9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라 <제10곡>

10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11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12은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13최 행수 쑥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14달집 게짬 올벼 점심은 날 시키소
 15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 김광욱, 「율리유곡(栗里遺曲)」 -

* 수출전원 :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

(다)

1오십이 넘은 판교(板橋)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MEMO

²“청수(淸瘦)한 한 폭 대를 그리어 추풍강상(秋風江上)에 낚대나 만들까 보다.”

³㉠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모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연히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淸高)한 마음이나. ⁴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

⁵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⁶가장자리에는 물이끼들이 짝 엉겼을 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떼밖에 오지 않는지라, 팔 힘 자라는 대로 낚싯줄이 허(許)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 ⁷풍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에 찌만이 외롭고 슬프게 곧추서 있다.

⁸㉡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짝 찬 이 풍진(風塵)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⁹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 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고 있노라면, 가다가 ㉢별안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¹⁰‘고기가 왔구나!’

¹¹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달려 들어간다.

¹²‘옳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A] ¹³잡아당길 때 무거운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행여나 낚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 허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¹⁴큰 고기는커녕 어떤 때는 방게란 놈이 달려 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 ¹⁵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란 법은 없나 보다.

[B] ¹⁶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마는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 다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게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체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는 판에, ¹⁷그래도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랴 하는 판에,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쟁제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¹⁸㉣세상이 하 뒤송송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의 유희(遊戱)로 폭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¹⁹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율화가 터져 나온다.



²⁰위진(魏晉) 간에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으나, ²¹㉔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古人)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 한묵 :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5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제17곡>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MEMO

6 문맥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 : 낚시를 해 본 후 달라진 글쓴이의 마음가짐으로서,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7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도연명'과 (다)의 '판교'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 ② (나)의 '삼공'과 (다)의 '성격 파산자'는 모두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 ③ (나)의 '세버들 가지'와 (다)의 '청수한 한 폭 대'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④ (나)의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다.
- ⑤ (나)의 '시름'과 (다)의 '욕'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8 [시]와 [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이감은 [B]에서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확장된다.
- ② [A]에 나타난 글쓴이의 무력감은 [B]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을 통해 해소된다.
- ③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실망감은 [B]에서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진다.
- ④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상실감은 [B]에서 새로운 이상을 품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A]에 나타난 글쓴이의 혐오감은 [B]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으로 전환된다.



9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MEMO

보기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써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표상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작품에 명시된 공간은 물론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도 포함된다.

- ① (가)의 ‘신선 골짜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이에 대립되는 곳으로 ‘백 년 근심’이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나)의 ‘넓은 다리’는 ‘추가’와 ‘은 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화자가 돌아온 곳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이대도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곳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내 서재’는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겠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가)

¹㉠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²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³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⁴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⁵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⁶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⁷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나)

¹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²그 모른 늪들 은 운는다 흐다마는

³어리고 하얗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흐노라 <제1수>

⁴보리밥 풋노 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⁵바윗 곳 뽕의 슬긱지 노니노라

⁶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⁷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뽕흘 바라보니

⁸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⁹말슴도 우웁도 아녀도 묻내 도하흐노라 <제3수>

¹⁰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흐라

¹¹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뎛더라

¹²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¹³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랴실샤

¹⁴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흐 일도 아니 맞더

¹⁵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희라 흐시도다 <제5수>

¹⁶강산이 도타 흔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¹⁷남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¹⁸아무리 갑고자 험야도 허을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다)

¹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²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³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⁴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⁵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⁶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⁷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이덕무, 「우언(迂言)」 -

10 (나)의 사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사상이 전개된다.
-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사상이 시작된다.
-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사상이 전환된다.
-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MEMO

11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슈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늬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늬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② '바빻 곳 뭉긔'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너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④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12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 ②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MEMO

14 ㉠을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가)

¹문장(文章)을 흐자 하니 인생식자(人生識字) 우환시(憂患始)*오
²공맹(孔孟)을 빅호려 하니 도약등천(道若登天) 불가급(不可及)*이로다
³이 내 몸 쓸 디 업스니 성대농포(聖代農圃)* 되오리라

<제1장>

⁴홍진(紅塵)에 절교(絶交)하고 백운(白雲)으로 위우(爲友)하야

⁵녹수(綠水) 청산(靑山)에 시름 업시 늘거 가니

⁶이 둥의 무한지락(無限至樂)을 현스홀 가 두려웨라

<제3장>

⁷인간(人間)의 벗 잇단 말가 나는 알기 슬희여라

⁸물외(物外)에 벗 업단 말가 나는 알기 즐거웨라

⁹슬커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흐노라

<제6장>

¹⁰유정(有情)코 무심(無心)홀 손 아마도 풍진(風塵) 봉우(朋友)

¹¹무심(無心)코 유정(有情)홀 손 아마도 강호(江湖) 구로(鷗鷺)

¹²㉠ 이제야 작비금시(昨非今是)* 을 씨드룬가 흐노라

<제8장>

¹³도팽택(陶彭澤) 기관거(棄官去)* 홀 제와 태부(太傅) 곁해귀(乞骸歸)* 홀
 제

¹⁴호연(浩然) 행색(行色)을 뉘 아니 부러히리

¹⁵알고도 부지지(不知止)* 하니 나도 몰나 흐노라

<제9장>

¹⁶인간(人間)의 풍우(風雨) 다(多)하니 므스 일 머므느뇨

¹⁷물외(物外)에 연하(煙霞) 족(足)하니 므스 일 아니 가리

¹⁸이제는 가려 정(定)하니 일흥(逸興) 계워 흐노라

<제11장>

- 안서우, 「유원십이곡」 -

- * 인생식자 우환시 :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됨.
- * 도약등천 불가급 : 도는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아 미치기 어려움.
- * 성대농포 :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음.
- * 작비금시 : 어제는 그르고 지금은 옳음.
- * 도팽택 기관거 :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떠남.
- * 태부 곁해귀 : 한나라 태부 소광이 사직을 간청함.
- * 부지지 :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함.

(나)

¹어느 날 나는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이었다. ²정신이 산란하고 병이



MEMO

아닌데 병이 든 듯하여 그 원기가 상했다. ³가슴이 돌에 눌린 것처럼 답답한 게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이 틀림없었다. ⁴무당을 불러 귀신에게 말하게 했다.

⁵“내가 내 속에 숨어들어서 큰 병이 났다. …(중략)… 게을러서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며, 솔밭이 부러져도 게을러서 고치지 않고, 의복이 해져도 게을러서 깎지 않으며, 종들이 죄를 지어도 게을러서 묻지 않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게을러서 화를 내지 않아서, 마침내 날로 행동은 굼떠 가고, 마음은 바보가 되며, 용모는 날로 여위어 갈 뿐만 아니라 말수조차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허물**은 네가 내게 들어와 **멋대로** 함이라. 어찌서 다른 이에게는 가지 않고 나만 따르며 귀찮게 구는가? 너는 어서 나를 떠나 저 낙토(樂土)로 가거라. 그러면 나에게는 너의 피해가 없고, 너도 너의 살 곳을 얻으리라.”

⁶이에 귀신이 말했다.

⁷“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화를 입히겠습니까? 운명은 하늘에 있으니 나의 허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굳센** 쇠는 부서지고 강한 나무는 부러지며,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기 쉽고, 우뚝한 것은 꺾이기 쉽습니다. 굳은 돌은 고요함으로 이지러지지 않고, 높은 산은 고요함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쉽게 요절하고 고요한 것은 장수합니다. 지금 당신은 저 산처럼 오래 살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의 근면은 화근이, 당신의 게으름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력을 쫓다 우왕좌왕하여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가 분분하지만, 지금 당신은 물러나 앉았으니 당신에 대한 시비의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러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지금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정신을 잘 보존하니, 당신에게 어느 것이 **흥하고** 어느 것이 **길한** 것이겠습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유지(有知)를 버리고 무지(無知)를 이루며, 유위(有爲)를 버리고 무위(無爲)에 이르며, 유정(有情)을 버리고 무정(無情)을 지키며, 유생(有生)을 버리고 무생(無生)을 즐기면, 그 도는 죽지 않고 하늘과 함께 아득하여 **태초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당신을 도울 것인데, 도리어 나를 나무라시니 자신의 처지를 아십시오. 그래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⁸이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⁹그래서 ㉠ 앞으로 나의 잘못을 고칠 터이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게으름은 그제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로 했다.

- 성현, 「조용(嘲慵)」 -

MEMO

1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소재를 통해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진술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주어진 삶에 순응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를 통해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유원십이곡」은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화자는 강호에 머문 뒤에도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한다. 이는 강호에서의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강호를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제1장>의 초장에는 화자가 강호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드러난다.
- ② <제3장>의 중장에는 강호를 선택한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드러난다.
- ③ <제6장>의 종장에는 화자 자신이 분수에 맞는 선택을 했음이 드러난다.
- ④ <제9장>의 중장에는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함으로써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
- ⑤ <제9장>의 종장에는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11장>의 종장에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17 절교와 위우를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인간의 벗'으로 볼 수 있다.
- ② 화자는 '붕우'를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화자는 '백운'과의 '위우'를 통해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화자가 '위우'하고자 하는 '구로'는 '물외에 연하 족'한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화자가 '물외에 벗'과 '위우'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정코 무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8 ㉠과 ㉡을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화자는 ‘공맹을 변호’기 위해 ‘성대농포’의 길을 가야 함을 알게 되었다.
- ② ㉠의 ‘나’는 ‘태초와 하나가’ 되게 하는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며 ‘군센 쇠’와 같은 변치 않는 삶을 다짐하고 있다.
- ③ ㉠의 화자는 ‘녹수 청산’에서의 삶을 즐거워하고, ㉡의 ‘나’는 ‘깨끗한 것’을 ‘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④ ㉠의 화자는 현재의 삶이 옳음을 ‘찌드르갸’로 밝히고, ㉡의 ‘나’는 반성의 태도를 ‘고칠 터이니’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의 화자는 ‘풍우 다’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 ‘나’는 ‘시비의 소리’에 흔들렸던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용」에서 필자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게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를 담아내고 있다. 필자는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어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는 한편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준다.

- ① ‘나’가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서, 자신의 게으른 생활에 대해 살펴보려는 필자의 모습을 알 수 있겠군.
- ② ‘나’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를 나열하는 것에서, 게으름의 폐단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생각을 알 수 있겠군.
- ③ ‘나’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라 여기는 것에서,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 ④ ‘나’가 게으름 덕분에 ‘물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 주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 ⑤ ‘나’가 게으름 덕분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다투는 사람들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시각을 알 수 있겠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가)

- 1㉠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흐고
- 2넋사름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 3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 4산림에 뭇쳐 이서 지락(至樂)을 므를 것가
- 5㉡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 6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셔라
- 7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 8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여 잇고
- 9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 10칼로 툇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 11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험스럽다
- 12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뭇내 계워 소리마다 교테로다
- 13물이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이 다룰소냐
- 14시비에 거러 보고 ㉢ 정자에 안자 보니
- 15소요음영* 햏야 산일(山日)이 적적흔디
- 16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17㉣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
- 18답청(踏青)으란 오늘 흐고 욱기(浴沂)란 내일 햏새
- 19아춤에 채산(採山) 흐고 나조히 조수(釣水) 햏새
- 20뭇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 21꽃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 22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 23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 24㉤ 준중(樽中)이 뷏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 25소동 아히드려 주가에 술을 물어
- 26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 27미음완보(微吟緩步) 햏야 ㉥ 시냇뭇의 호자 안자
- 28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 29청류(清流)를 곱어보니 썬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 30무릉이 갓갑도다 저 밍이 권 거인고

- 정극인, 「상춘곡」 -

- * 울울리 : 뽁뽁하게 우거진 속.
- * 소요음영 :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나)

- 1㉠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로터니
- 2주모복거(誅茅卜居)흐니 뱃뉘 다 오신다



MEMO

3어즈버 무이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1수>

4일곡은 어디미오 ㉔ 관암에 히 비친다

5평무(平蕪)에 너 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6송간(松間)에 녹준*을 노코 벗 오는 양 보노라 <2수>

7이곡은 어디미오 화암에 춘만(春晩)커다

8벽파*에 곱을 썬워 야외로 보노라

9㉔ 사름이 승지(勝地)를 모로니 알게 흔들 엇더리 <3수>

10오곡은 어디미오 은병(隱屏)이 보기 도타

11수변(水邊) 정사는 소쇄흙*도 ㄱ이 업다

12이 중에 강학(講學)도 흐려니와 영월음풍 흐리라 <6수>

13칠곡은 어디미오 ㉕ 풍암에 추색(秋色) 도타

14청상(淸霜) 얹게 치니 절벽이 금수(錦繡) | 로다

15한암(寒巖)에 흔즈셔 안자 집을 잇고 잇노라 <8수>

16구곡은 어디미오 문산에 세모(歲暮)커다

17기암괴석이 눈 속에 무쳐세라

18㉔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업다 흐더라 <10수>

- 이이, 「고산구곡가」 -

* 녹준 : 술잔 또는 술동이.

* 벽파 : 푸른 물결.

* 소쇄흙 : 기운이 맑고 깨끗함.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점층적인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인물들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통하여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MEMO

2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조선 전기의 시조와 가사는 노래로 향유되며,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갈래적 특성으로 인해 사대부 시가에는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이 관습화되었다.

- ① ㉠에서는 청자와 화자가 서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질문하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청자를 불러들여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동질성 회복을 권유하고 있다.
- ③ ㉢에서는 화자가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며 자신과 뜻을 같이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의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다.

22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MEMO

23 a~f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거처인 a를 나와 b와 c의 장소들로 옮겨 다니고 있다.
- ② (나)의 화자가 소개하는 e와 f는 a를 구성하는 장소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 ③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b와 e를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a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나)의 화자는 자신이 a에 터를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c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f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

24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이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 ① 고산구곡에서의 생활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구곡이 작자와 ‘벗님’들의 교유 장소로도 활용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겠군.
- ② 작품 창작 이후와 관련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학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참된 즐거움과 관련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월음풍’이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⑤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

